

대전에서는 무얼 마시나?

- 편의점 POS와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한 음료수 소비 분석 -

대전지역 주요 편의점 POS 데이터와 카드사 결제 데이터를 결합한 '편의점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 소비패턴의 특징을 살펴봤다. 분석 대상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간 판매된 319만여 개의 물품 기록이다. 이 가운데 음료수가 전체의 43.7%인 139만여 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데이터 텔러는 음료수의 소비를 시간(계절), 사람(성과 연령), 공간(행정동)별로 분석해서 대전지역 소비패턴 특징을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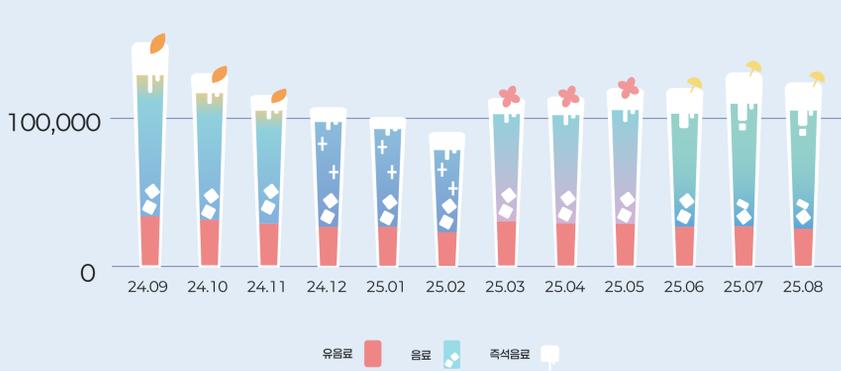
*분석의 기초가 되는 편의점 POS 데이터는 편의점 업계 상위 3개 브랜드 중 하나이며, 카드 결제 데이터는 전국 점유율 19% 수준의 대형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했다.

가을철 음료수 소비 최대, 파우치음료·전통음료·주스는 계절별 선호 뚜렷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지난 1년간 대전지역 편의점에서 소비된 음료수는 139만여 개다. 이 가운데 기능성드링크와 탄산음료, 생수를 포함한 음료는 90만여 개로 가장 많이 소비됐고, 가공우유와 두유를 포함한 유음료와 즉석음료는 각각 34만여 개, 15만여 개 소비됐다.

계절별 음료수의 소비를 살펴보면 가을에 39만여 개로 가장 많고, 여름 37만여 개, 봄 34만여 개, 겨울 29만여 개 순이다. (*봄은 3~5월, 여름은 6~8월, 가을은 9~11월, 겨울은 12~2월로 구분).

편의점에서 판매된 음료수의 판매 개수



탄산음료와 기능성드링크는 계절에 따른 큰 차이 없이 연중 꾸준히 소비됐다. 탄산음료 가운데 제로탄산은 9.4만여 개, 기능성드링크 가운데 에너지음료는 9.5만여 개로 최대 소비량을 기록했다. 반면 일부 품목은 계절에 따라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봄에는 냉장주스와 즉석커피, 두유의 소비가 증가했고, 여름에는 얼음커피와 파우치음료의 소비가 50% 이상 증가했다. 겨울에는 따뜻한 전통음료와 두유 소비가 다른 계절보다 높았다.

계절별 평균 대비 증감률 상위 3개 품목



남성이 여성보다 2.6배 더 많은 음료수 소비, 성·연령대에 따른 음료수 선호도 차이

지난 1년간 대전지역 편의점에서 남성은 101.1만여 개, 여성은 38.5만여 개의 음료수를 소비했다. 남성의 음료수 소비가 여성보다 2.6배 많다. 소비한 음료수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탄산음료와 기능성드링크를 공통적으로 많이 찾았고, 남성은 커피음료, 여성은 가공우유¹⁾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했다.

1) 원유(원 우유)에 당류, 향료, 색소 또는 과즙이나 곡물 등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더해 맛을 낸 것으로, 바나나맛 우유, 딸기우유, 초코우유 등이 대표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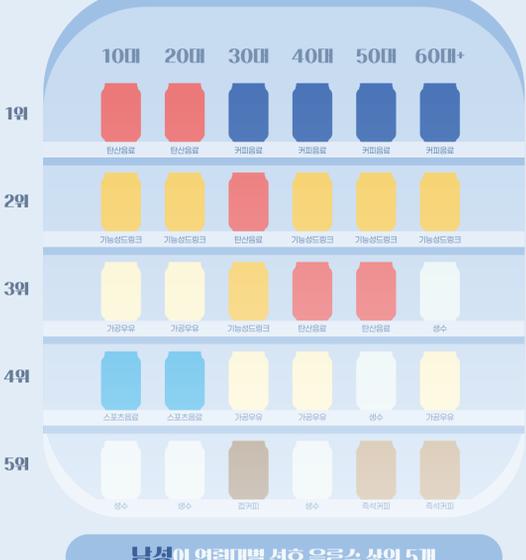
남성이 음료수 구매 품목 및 비율



여성이 음료수 구매 품목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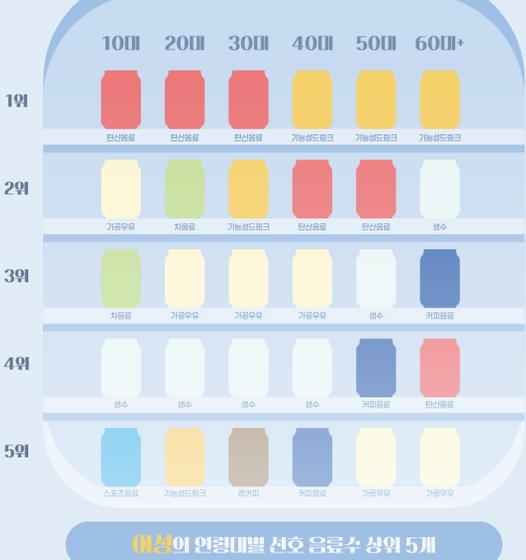


연령대별 음료수 선호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10대와 20대에서 탄산음료를 가장 많이 소비했고, 기능성드링크, 가공우유, 스포츠음료, 생수가 뒤를 이었다. 반면 30대부터는 커피음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탄산음료 선호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이 연령대별 선호 음료수 상위 5개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탄산음료와 기능성드링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10대부터 30대까지는 탄산음료를 가장 많이 소비했고, 가공우유, 차음료, 생수, 스포츠음료가 뒤를 이었다. 40대부터는 기능성드링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생수와 커피음료의 선호도 함께 높아졌다.



여성이 연령대별 선호 음료수 상위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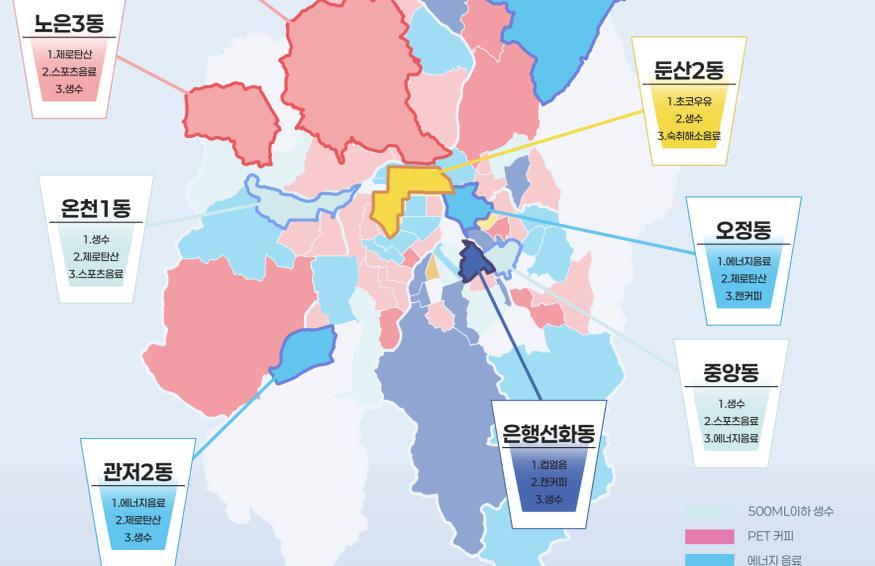
행정동마다 다른 음료수 취향... 대전시 24개 행정동은 '제로탄산' 흥행

이 지도는 편의점 소비 빅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는 77개 음료 분류를 바탕으로 대전시 행정동별 최대 소비 음료를 표현한 지도다. 지도에 구분되어 있는 색은 가장 많이 소비된 음료 종류를 표현하기 위해 활용했다.

온천2동, 둔산3동, 노은3동 등 24개 동에서 '제로탄산'이 가장 많이 소비됐다. 오정동과 대화동 등 18개 동에서는 에너지음료가, 온천1동과 중앙동 등 9개 동에서는 컵음료 및 생수가 가장 많이 소비됐다. 회덕동과 진잠동 등 8개 동은 커피, 둔산2동과 황도동은 초코우유 소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흥미로운점은 생수와 컵음료를 제외하면 대전의 주요 소비 음료는 모두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동별 음료수의 소비 특성을 제외하고 절대 판매량을 봤을 때 음료수 소비가 가장 많은 동은 온천1동으로 지난 1년 동안 12.7만여 개의 음료가 소비됐다. 그 다음은 둔산2동 8.5만여 개, 온천2동 6.4만여 개 순이다.

온천1동은 500ml 이하 생수와 제로탄산, 스포츠음료가, 둔산2동은 초코우유와 500ml 이하 생수, 숙취해소음료가 많이 소비됐다. 은행선화동은 다른 동과 달리 컵음료가 가장 많이 소비됐다. 그 외 주요 동들의 음료수 소비는 아래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음료 소비 행정동별 1위 분포도

500ml이하 생수
PET 커피
에너지 음료
제로탄산
초코 우유
컵커피(일반)
컵음료
종자